

법정사 항일운동 가담자와 운동의 성격

김 창 민*

1. 머릿글

기미년(서기 1919년)에 한 해 앞서 일어난 무오년(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은 일제시대 민족운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선 시기상 전국적인 항일운동인 기미년 항일운동에 앞서 일어났다는 점이 중요하고 다음으로는 항일운동에서 폭력을 사용하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무오년 법정사 항일운동은 이후 전개되는 민족운동사의 방향타 역할을 한 사건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법정사 항일운동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이는 일차적으로 법정사 항일운동이 제주도라는 좁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서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크지 못하였기 때문(임혜봉 1995:12)이라고 생각된다. 더구나 다음해 일어난 기미년 항일운동이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가지고 전개되었기 때문에 무오년 항일운동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적게 받게되었다. 또한 무오년 항일운동이 통칭 ‘보천교도의 난’이라고 명명된 것도 이 항일운동을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게 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제주도에서 보천교는 ‘폐가망신을 하게 한 종교’라고 인식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보천교도의 난’이라고 명명된 법정사 항일운동은 주목받을 수도 없었고 정당하게 평가받지도 못하게 되었다. 다행히 안후상(1993)이 보천교 항일운동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고, 몇가지 관련 문서와 자료들¹⁾이 발굴됨으로써 무오년 법정사 항일운동은 새롭게 조명받고 그 실체에 어

* 전주대 교양학부

1) 1918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작성한 ‘형사사건부’, 1918년 광주지방법원 제

느 정도 가깝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자료의 발굴 이후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논의는 활기를 띠게 되었으나 그 주된 논쟁은 주도 세력 논쟁으로 한정되어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즉, 보천교 항일운동의 사회적 성격이나 역사적 성격에 대한 논쟁보다 주도세력이 누구인가, 구체적으로 이 항일운동이 불교계 승려 중심의 항일운동인가 보천교도에 의한 항일운동인가의 논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전형적으로 임혜봉(1995:15)은 이 항일운동을 보천교의 난이라고 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불교 승려들이 주도한 항일운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안후상(1995:91)은 주도 세력 논쟁 자체를 비판한 후 임혜봉의 주장과는 반대로 법정사 항일운동이 '불교계가 주도한 사건'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주도세력 논쟁은 운동을 어느 한 집단의 전유물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 어느 한 집단의 전유물이 된 사건이 지역 주민의 공감대에 기초한 민족정신으로 계승되기 어렵다는 점은 너무 명백하다. 주도세력 논쟁을 넘어서서 무오년 법정사 항일운동의 사회문화적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이 연구는 법정사 항일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밝힘으로써 운동의 성격을 규명해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에 관여된 사람은 수백명 이상이지만 구체적인 이름과 출신 지역을 알 수 있는 사람은 형사사건부를 비롯한 몇몇 자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검찰에 송치된 66명²⁾이다. 이미 서귀포시에서는 서훈 및 포상과 관련하여 이들의 신원을 조사하였으며 일부의 신원과 후손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신원 파악은 주로 연고자 조사이며 이들이 당시 어떤 사회경제적 상태에 있었는지는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연고자 조사는 당시 가담자와 현재 살고 있는 사람 사이의 관계만 보여 줄 뿐이지만 가담자들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운동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법정사 항일운동 가담자의 당시 경제적 상황, 사회적 신분, 친척관계 등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위치에 대한 규명이 있어야만 운동의 실체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기 때

주지청에서 작성한 '수형인명부'의 두 자료가 1994년에 발굴되었고, 고등경찰요사에서 <제주도소요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법정사 항일운동 관련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이 발견되었다.

2) 이중 기소자는 48명(실행 31명, 재판전 옥사 2명, 벌금 15명)이며 18명은 불기소되었다.

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에는 기존의 자료가 턱없이 빈약하다.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지 연구와 미시적인 자료 검토 작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필자는 장기적인 현지연구를 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월평마을에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사건 당시에 가까운 호적증초를 분석하였다. 호적증초에 나타난 이들의 신원을 파악함으로써 이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고, 친척관계도 일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을 사람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당시 이들의 직업과 거주지 등을 파악함으로써 조각난 정보의 조각을 맞추고자 하였다. 한정된 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는 향후 보완되고 가담자가 많았던 도순마을과 하원마을 출신자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밝혀둔다.

2. 가담자의 일반적 성격

대정 7년(1918년)에 작성된 수형인 명부에는 법정사 항일운동으로 검찰에 기소된 48명 중 옥사한 2명을 제외하고 46명의 인적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작성된 형사사건부에는 관련자 66명의 인적사항과 선고받은 형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형사사건부를 기준으로 이들 66명의 인적 사항과 형의 내용을 살펴보면 <표1>과 같다.

<표1> 법정사 항일운동의 검찰 송치자

이름	주소/본적	연령	형	직업	기타
김연일	도순 법정사	(48)	10년	주지	
조인혁	도순	48	불기소	잡화상	
김삼만	도순 법정사	55	4년	일용	
양남구	도순	55	4년	농업	
장림호	도순 법정사	63	4년	무직	
문남규	도순	49	3년	농업	
문남근	도순	44	1년	농업	문남규의 동생
이종청	도순	38	1년	농업	
문남진	도순	52	불기소	농업	
이원평	도순	32	1년	농업	
정구룡	도순 법정사	(30)	3년	무직	
방동화	도순 법정사	32	6년	(농업)	
강민수	도순 법정사	(39)	1년 6개월	무직	
김용충	도순 법정사	(30)	1년 6개월	(무직)	
한윤옥	도순 법정사	18	불기소	하인	

이름	주소/본적	연령	학	직업	기타
김기수	월평	21	1년	농업	
김무석	월평	31	2년	농업	
김성수	월평	21	1년	농업	
조계성	월평	36	2년	농업	
최신일	월평	42	1년	농업	
강영준	월평	20	불기소	농업	
이무현	월평	21	불기소	농업	
강두옥	월평	62	30원	단화직?	
현무생	월평	32	30원	농업	
송을생	월평	44	30원	농업	
김창호	월평	40	30원	농업	
이원영	월평	44	30원	농업	
이봉규	하원	41	30원	농업	
이승무	하원	28	1년	농업	
오병윤	하원	22	1년	농업	
김상산	하원	48	6년	농업	
이달생	하원	32	1년	농업	
강기추	하원	35	불기소	농업	
현재천	하원	46	불기소	농업	
이춘삼	하원	63	6개월	농업	
양봉	하원	28	30원	농업	
원인수	하원	51	30원	농업	
김인송	하원	41	30원	농업	
지축생	하원	42	30원	농업	
지갑생	하원	30	30원	농업	
오인화	하원	23	30원	농업	
강무송	하원	35	30원	농업	
강태하	하원	22	30원	농업	
원성춘	하원	24	불기소	농업	
김병일	하원	23	불기소	농업	
김인호	하원	38	불기소	농업	
고기동	하원	22	불기소	농업	
김두상	영남	25	1년	농업	
김항률	영남	39	30원	농업	
박경치	영남	44	불기소	농업	
이자춘	영남	43	불기소	농업	
박주석	금악	55	7년	농업	
강봉환	금악	51	2년	농업	
김봉화	대포	39	2년	농업	
김윤석	대포	58	불기소	농업	
김명돈	덕수	46	1년	농업	
최문수	법환	52	불기소	농업	
강창규	사계	(40)	8년	(무직)	
강수오	사계	미상	재판 전 목사	미상	강창규의 동생
오인석	상예	38	불기소	농업	
최태우	서홍	45	4년	일용	
김인수	영일도구	20	3년	(무직)	
강익	오들	42	불기소	농업	
강춘근	오라	27	재판 전 목사	농업	
고용석	중문	52	3년	농업	
이세인	회수	30	불기소	농업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정사 항일운동의 송치자들은 주로 법정사 인근 마을인 하원, 도순, 월평의 3개 마을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즉, <표2>에서 요약된 바와 같이 전체 66명 가운데 도순이 15명(법정사 거주자 8명 포함), 월평이 12명, 하원이 20명으로 이 세 마을 사람들이 47명이나 된다. 특징적인 것은 이들 세 마을을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도순 사람들은 징역형이 많았고, 월평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많았으며 하원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많았다는 점이다. 검찰에 송치된 사람들만 놓고 본다면 도순사람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 사건에 가담하였고, 상대적으로 하원사람들은 단순 가담하였다고 할 수 있다.

<표 2> 검찰 송치자의 마을별 분포

마을	하원	도순	월평	영남	기타	계
송치자 수	20	15	12	4	15	66

송치자를 연령별로 보면 <표3>과 같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별로 검찰 송치자를 보면 20대부터 50대까지 고르게 분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법정사 항일운동이 특정 연령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모든 연령층에서 참여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연령에 따라 형의 차이도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운동 참여자들이 연령별로 고른 적극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3> 검찰 송치자의 연령별 분포

연령대	~29	30-39	40-49	50-59	60 이상	미상	계
송치자 수	16	18	19	9	3	1	66

검찰에 송치된 66명이 받은 형벌의 정도는 <표4>와 같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66명중 절반에 가까운 31명이 징역형을 받았으며 15명은 벌금형을 받았고 2명은 선고 전 옥사하였으며 18명은 불기소 처분되었다. 30원의 벌금형을 받

은 사람들은 벌금을 물지 못해 30일간 감옥에서 노무형을 살았다. 이는 송치된 자들에 대한 형벌이 상당히 가혹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30일 일당에 해당하는 30원의 벌금을 물지 못하고 노무형을 살았다는 점에서 이들이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³⁾.

<표 4> 검찰 송치자의 선고 형별

형별	징역	벌금형	불기소	기타	계
송치자 수	31	15	18	2	66

송치된 66명을 직업별로 분석하면 <표5>와 같다. 송치자들의 직업이 농업인 사람이 53명으로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무직이라고 표현된 사람이 6명이었다. 직업이 무직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대부분 주소지를 법정사에 두고 있는 사람들로서 승려의 신분인 사람들이라고 생각된다. 그 외 일용이 2명이며, 잡화상, 하인 등 기타 직업을 가진 사람이 4명이었다.

<표 5> 검찰 송치자의 직업

직업	농업	무직	일용	기타	미상	계
송치자 수	53	6	2	4	1	66

여기서 직업을 농업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물론 당시 제주도 사람들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조 이래 제주도에 화전농의 비율이 아주 높았으며 법정사 항일운동 당시의 제주도에도 화전농은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김상호 1979:91 참고)⁴⁾. 화전농은 정주화를

- 3) 1939년에 발간된 조선반도의 농법과 농민-제주도 편에는 제충국 심는 인건비가 하루 1원 20전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1918년 당시의 인건비는 1원 정도였다고 유추하였다. 더구나 30원의 벌금이 30일의 노역으로 대치되었다는 점도 1일 인건비를 1원으로 유추하게 하는 근거가 되었다.
- 4) 김상호는 1930년대까지 제주도의 산간지대에서 화전농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로 맥류를 재배한 화전농에서 토지가 비옥하면 10년에 3번 경작, 보통이

전제로 화전개척을 하는 開拓型 화전과 산을 유랑하면서 불농아 농업을 반복하는 遊農型 화전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김상호 1979:86). 이 유농형 화전농이 한말 이후 일제시대까지 제주도 주민들의 마을간 이주 경로가 되었으며, 특히 한림 지방에서 중문지역으로 주민들이 이동하는 중요한 경로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중산간 또는 산간지역에 2-3년 정도 일시적으로 거주하면서 화전을 하고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화전하는 방식으로 살았으며, 산에서 숲을 만들이 팔기도 하였다⁵⁾. 이런 배경에서 생각해 본다면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가한 농민들은 상당수 화전농이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런 유추를 가능하게 하는 다른 근거는 호적중초에 이들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즉, 1910년경에 작성된 호적중초를 살펴보면 송치자의 이름 중 절반 이상이 호적중초에서 누락되어 있다. 이는 이들이 당시 호구조사에서 마을의 호로 인정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들이 중산간 또는 산간지대에서 거주하였다는 유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고려사에 나오는 白丁이 화전경작을 하여 호적에 오르지 않으면서 국역부담도 지지 않았던 사람이었음을 고려한다면 호적중초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의 직업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요약한다면 법정사 항일운동에 적극 가담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법정사 인근의 중산간 또는 산간지역에서 화전농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3. 월평마을 가담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월평마을에서 이 사건에 가담한 사람은 최신일, 김기수, 김무석, 김성수, 조계성, 강두옥, 현무생, 송을생, 김창호, 이원영, 강영준, 이무현 등 12명이다. 최신일(징역 1년)은 현재 마을에 살고 있는 최복순씨의 조부로서 1909년 월평리 호적중

면 10년에 2번 경작, 토질이 나쁘면 10년에 1번 경작하였다고 한다. 이런 영농방식은 넓은 토지를 요구하게 되며 농민의 이동성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

5) 도순 출신의 문남규, 문남은 형제는 도순 마을공동목장에서 화전을 하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도순에서 검찰에 송치된 사람들은 주로 법정사 인근에서 살던 사람이라고 한다.

초에도 그 이름이 존재한다. 그러나 1901년 호적중초에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아 그 사이에 마을에 이주한 사람으로 짐작할 수 있다. 김기수(징역 1년)씨는 ‘영나리 하루방’이라고 불리운 사람으로서 후손은 없고 양자가 현재 도순에 살고 있다. 그는 딸만 하나 두었으며 명석 짜는 일을 하면서 가난하게 살았다고 전해진다. 호적중초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김무석(징역 2년)은 김일순의 선친이다. 그는 선도교도로 알려져 있으며 조계성과 함께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월평 출신으로는 가장 무거운 형을 받았다. 김성수(징역 1년)는 김연일의 조카라고도 알려지고 있으나 확인할 수 없었다. 마을에 친척이 남아있지 않아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 조계성(징역 2년)도 선도교도로 알려지고 있다. 그의 주소지는 현재 월광사(월평 마을에 있는 작은 절) 자리이다. 마을에 후손이나 친척이 남아있지 않으며 호적중초에도 그의 이름은 없다. 현무생(벌금 30원)은 현재 후손을 확인할 수 없으나 호적중초에는 그 이름이 남아있다. 그는 마을 설촌 당시부터 살았던 현상율의 차남이었다. 송을생(벌금 30원)은 김영일의 처조부이며 그의 며느리인 김두인씨도 현재 마을에 살고 있다. 호적중초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김창호(벌금 30원)는 김윤종의 조부이다⁶⁾. 1909년 호적중초에서도 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무현은 이문필씨의 선친으로 짐작된다. 호적중초에 이름이 나온다. 이원영(벌금 30원)과 강두옥(벌금 30원), 강영준(불기소)는 전혀 신원 확인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신원이 확인되는 이들을 중심으로 월평리의 가담자를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이들은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12명 중 1909년 또는 1901년의 호적중초에 이름이 나오는 경우는 5명에 불과하며 다른 사람들은 호적중초에서 그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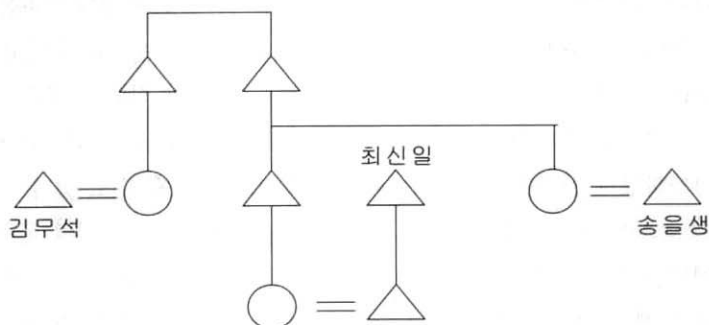
6) 형사기록부에 나타난 김창호의 나이와 족보상에 나타난 김윤종의 조부 김창호의 나이는 약간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두 사람을 동일 인물로 보는 이유는 월평마을 출신으로서 제주교대 학장을 지낸 김문규의 기록 때문이다. 김문규는 1980년경 월평마을의 마을지 초본을 남겼다. 그 초본에 법정사 항일운동에 관한 기록이 일부 있으며, 당시 마을 출신으로 가담한 사람 명단에 김윤종의 증조부, 즉 김창호의 아버지인 김기휴(金基休)의 이름이 있다. 김기휴는 다른 어느 자료에서도 가담자로 나타나지 않는데, 아마 김문규는 김기휴와 김창호를 혼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기록에 근거하여 형사기록부의 김창호와 김기휴의 장남 김창호를 동일인물로 판단하였다.

들이었다⁷⁾.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들은 주로 중산간 지역에 거주하면서 화전을 하던 비정착민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지연구를 통해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마을에 정착하여 살았던 사람들도 경제적 상황은 매우 어려웠다고 한다. 이들의 후손들도 대다수 토지 소유가 많지 못하여 가난하게 살았다. 물론 후손이 어렵게 산 것은 이들이 항일운동에 참가한 결과라고 해석될 수도 있지만 역으로 이들이 가난하였기 때문에 항일운동에 참가하였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두 번째 특징은 이들이 월평마을의 핵심적인 켤당관계에 포함되지 못하고 그들끼리 켤당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이다. 켤당은 제주도의 친척관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전경수 1983, 김창민 1992). 마을사람들은 부계혈통만 친척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켤당을 친척이라고 생각하며, 중첩된 혈통과 혼인의 망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 마을의 핵심적인 인사들은 매우 많고 중첩된 켤당관계를 가지며 주변적인 사람들은 켤당관계가 단순하게 나타난다. 당시 호적중초를 통해 보면 월평마을에는 고부 이씨, 진주 강씨, 제주 고씨, 경주 김씨 등이 중복된 혼인을 통해 마을에서 핵심적인 켤당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법정사 항일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은 이런 핵심적인 켤당관계에 전혀 관계되어 있지 못하였다. 오히려 이들 상호간에 혼인을 통한 켤당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그림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김무석과 최신일, 송을생은 서로 켤당이였다. 즉, 김무석과 송을생은 4촌 동서간이었으며, 김무석의 4촌처남이 최신일과 사돈간이었다. 또 송을생의 처남이 최신일의 사돈이었다. 이렇게 사돈 및 켤당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가하였으며, 이들은 마을의 켤당관계에서 보면 결코 핵심적인 위치에 있지 못하고 주변적인 위치에 있었다.

7) 당시 호적중초는 조세와 부역을 부과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따라서 가능하면 모든 사람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적중초에 기록되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특정 지역에 정착하여 살지 않았던 사람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림1> 김무석, 최신일, 송을생의 켄당관계



세 번째 특징은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살았으며 그 지역은 마을 주변부였다는 점이다. 이들의 지번을 통해서 거주지를 추적해 보면 월평마을의 가담자들은 공통적으로 지금의 월광사 인근과 현재 마을회관 주변에 살았음을 알 수 있다. 월광사터에 살았던 조계성을 중심으로 최신일은 남쪽으로 두 집 건너, 김기수는 북쪽으로 세 집 건너, 송을생은 최신일 옆집에 거주하였다. 그리고 김무석은 현재 마을회관으로부터 동쪽으로 세 집 건너에 살았다. 이들이 살았던 지역은 당시 기준에서 보면 마을의 가장 변두리에 해당된다. 마을회관 부근은 1970년대까지도 사람이 거의 거주하지 않던 지역으로서 마을 창고가 세워진 이후 사람이 본격적으로 거주하기 시작한 지역이다⁸⁾. 월광사가 있는 지역 역시 당시에는 마을에서 가장 주변적인 지역이었다. 월평은 달 모양의 마을로서 고부 이씨들이 터를 잡은 지역이 마을의 중심지였으며 상대적으로 월광사 부근은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월평마을은 고부이씨들이 터를 잡은 소위 '서반월' 지역에 가장 먼저 주거지가 형성되었으며, 이후 43항쟁 이후 동발지역에 거주지가 형성되고 마지막으로 알동네에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마을 주거지 확산 과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정사 항일운동에 가

8) 1970년대 마을창고를 건립할 때 재정적 후원을 한 재일교포들은 창고의 위치를 지금의 마을회관 부근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 이유는 마을이 동동네와 서동네로 분할되어 있어 그 지역에 창고를 세우면 두 마을이 이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담했던 사람들이 거주한 지역은 한번도 마을의 주거지 확산과정에서 주목받지 못한 지역이었다. 법정사 항일운동 가담자들이 마을 주변부에 살았다는 점은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보여준다. 이들은 마을 내에서 결코 사회적 지위가 높지 못한 사람들이었으며 주변적인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었다.

마을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지 못하던 사람들이 법정사 항일운동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법정사 항일운동은 민중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호적중초에서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로써 마을에 정착한 역사가 오래되지도 못하였고 중심적인 위치에 있지도 못하였다. 이들은 주로 중산간 지역에서 화전을 하던 사람들이었고 권당관계에서도 주변적인 지위에 있었다. 법정사 항일운동은 바로 이런 주변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운동으로서 민중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4.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

법정사 항일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기층 민중이었다. 법정사를 중심으로 종교활동을 하던 김연일과 박주석 등은 이들 기층민중들을 선동하여 중문의 경찰 주재소를 습격하고 주재소원과 일본인들을 구타하는 폭력적 항일운동을 주도하였다. 이들이 배포한 격문은 이 항일운동의 성격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왜노들은 우리나라를 병탄하고 그들 관리는 물론 장사아치에 이르기까지 우리 동포를 학대하고 있다. 억울한 원한은 하늘에 사무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다. 멀지않아 불무황제가 출현하여 우리의 국권회복을 도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때를 대비하여 우리를 못살게 구는 일본 관리들을 죽이고 장사아치들을 섬 밖으로 몰아내야 한다.(강용삼, 이경수 1984:214)”

이 격문은 전형적인 종교운동(Religious Movements)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외세의 침입으로 인한 현실의 질곡이 있고, 그 질곡과 억압을 현실적인 수단을 통해 극복하거나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현실을 전복하는 새로운 질서의 도래를 주장하는 종교 지도자가 나타나 새로운 세계질서의 도래를 선포함으로써 민중들을 규합하고 특정의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 전형적인 종교운동의 모델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남태평양 여러 지역에서 나타난 하물승배의례(Cargo Cults)와 백인에 의해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물리게 된 인디언들이 경험하였던 유령춤(Ghost Dance) 등이 이러한 사례들이다. 이런 종교운동은 영적인 힘을 가진 조상들이 나타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메시지를 선포하였다.

법정사 항일운동에서 배포된 격문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는 일본이 조선을 침탈하여 동포들이 학대받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곧 불무황제라고 하는 신적인 존재가 등장하여 국권을 회복할 것이라는 현실 전도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이며, 마지막은 따라서 일본인 관리를 없애고 일본인 상인들을 몰아내는 행동을 하자고 권유한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종교가 평화와 조화를 주장하고 비폭력을 강조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격문은 상당히 폭력적이며 이는 종교운동의 한 특색이기도 하다.

이러한 종교운동의 성격을 가진 메시지는 기층민중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 현실의 질곡이 강하면 강할수록 현실전도에 대한 유혹은 클 수밖에 없으며 현실의 문제와 억압을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수단을 가지지 못한 사람일수록 종교적이거나 초자연적인 힘에 의지하여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법정사 항일운동이 발발하였던 당시 제주도의 농민, 특히 화전민들은 이런 종교적 메시지에 쉽게 동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당시 제주도의 기층 민중들은 열악한 경제적 지위와 일제의 압제라는 이중적 억압을 받고 있었다⁹⁾. 토지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화전민이 되었기 때문에 한말 이전까지 화전민에 대해서는 조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화전민들이 토지를 개간하면 전체적으로 경지면적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들의 활동을 어느 정도 묵인하면서 조세 부담도 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말 이후 이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조세 부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즉, 화전민들은

9) 식민지배에 대한 상황은 안후상(1995:75-80)을 참고할 것.

생산성이 높지 못한 토지를 경작하면서 국가의 조세 부담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화전민들에게도 조세를 부여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자 정착형 화전민들조차 다시 유농형 화전민으로 전환되기에 이르렀다. 조세는 이들의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 일제의 식민지배를 받게 되자 이들의 생존조건은 최악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 때 나타난 선도교의 현실전복적 메시지는 이들로부터 강한 동의를 얻을 수 있었고 그 결과 폭력적인 항일운동으로 표출되었다. 당시 제주도의 종교상황으로 보면 불교와 선도교를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일이었다. 안후상의 견해(안후상 1995)대로 당시 제주도에는 불교가 아직 정착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반면 선도교는 이재수의 난 이후 종교 공백기에 본격적인 포교활동을 하던 시기였다. 당시 불교와 선도교는 상호 구분되기 어려울 정도로 융합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선도교도였던 조계성이 거주하였던 월평마을의 월정사가 지금 불교 사찰인 점만 보더라도 두 종교를 구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일이었다. 중요한 점은 법정사를 중심으로 한 김연일이 현실전복적인 메시지를 선포하였다는 점이고 이 메시지가 지역 주민들에게 강하게 받아들여졌다는 점이다. 요컨대, 법정사 항일운동은 종교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5. 맺음말

법정사 항일운동은 종교운동적 성격을 지닌 민중들의 항일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법정사 항일운동으로 인해 검찰에 송치된 사람들은 당시 제주 지역에서도 기층민중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다. 법정사 항일운동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중산간과 산간지역에 거주하면서 화전에 종사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송치자들은 켤당관계에서도 마을의 중심적인 켤당관계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거주지역으로 보더라도 그들은 마을의 주변부에 살았다. 이런 기층민중들이 법정사 항일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든 사실은 이 항일운동이 민중적임을 나타낸다.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었던 당시 제주민중들에게 강압적인 식민통치는 이중적 억압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경제적 억압과 식민지 압제라는 이중적 억압을 당하던 이들에게 김연일의 현실전복적 메시지는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 억압적인 현실이 전복되고 새로운 세계가 도래한다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신종교는 이들에게 매우 매력적이었으며 그 메시지가 현실에서 실현되기를 원하였을 것이다. 신종교의 지도자였던 김연일과 박주석의 지도로 경찰 주재소를 습격하고 일본인을 구타한 법정사 항일운동은 이 메시지의 실천이었던 셈이다. 다시 말하면 법정사 항일운동은 종교운동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기미년 독립운동에 한 해 앞서 일어난 법정사 항일운동은 이후 전국적으로 전개된 항일운동의 가늠자 역할을 하였다. 법정사 항일운동의 민중성은 이후의 항일운동에서 전 민족 구성원이 동참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법정사 항일운동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법정사 항일운동은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제주도라는 좁은 지역에서 일어나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크게 가지지 못하였다는 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였던 '보천교'와 명칭상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다는 점, 가담자의 사회경제적 신분이 민중적이었다는 점, 지나치게 주도 세력 논쟁에 집착하였다는 점 등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이제부터라도 법정사 항일운동은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되고 연구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그 민족운동사적 위상이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을 것이며, 운동의 정신 역시 우리가 계승해야 할 민족정신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강용삼·이경수, 1984 『대하실록, 제주백년』, 태광문화사
- 高橋 昇, 1939 『조선반도의 농법과 농민-제주도편』, 제주시 우당도서관 역 (2000)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1918 『형사기록부』
-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1918 『수형인명부』
- 국사편찬위원회, 1969 『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 4권
- 김문규, 『월평마을지』, 발간연도 미상, 미발간
- 김상호, 1979 “한국농경문화의 생태학적 연구-기저농경문화의 고찰”, 『사회과학논문집』 제4권 81-122,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 김창민, 1992 “범주로서의 친족: 제주도의 켄당”, 『한국문화인류학』 24:95-116, 교문사
- 안후상, 1993 “보천교운동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 1995 “무오년 제주법정사 항일무장봉기 연구”, 『중문청년회의소 창립 20주년, 해방 50주년기념 학술토론회 자료집』, 무오년 법정사 항일운동, 임혜봉, 1995 “제주도 법정사 스님들의 항일투쟁”, 『중문청년회의소 창립20주년, 해방 50주년기념 학술토론회 자료집』, 무오년 법정사 항일운동
- 전경수, 1983 “서평: 제주도의 친족조직”, 『진단학보』 5:209-217

이 논문은 2002년 11월 2일 투고 완료되어
 2002년 11월 4일부터 18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02년 11월 30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